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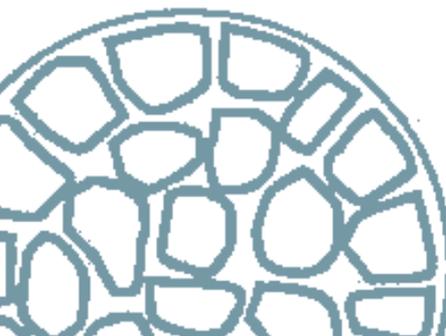
ART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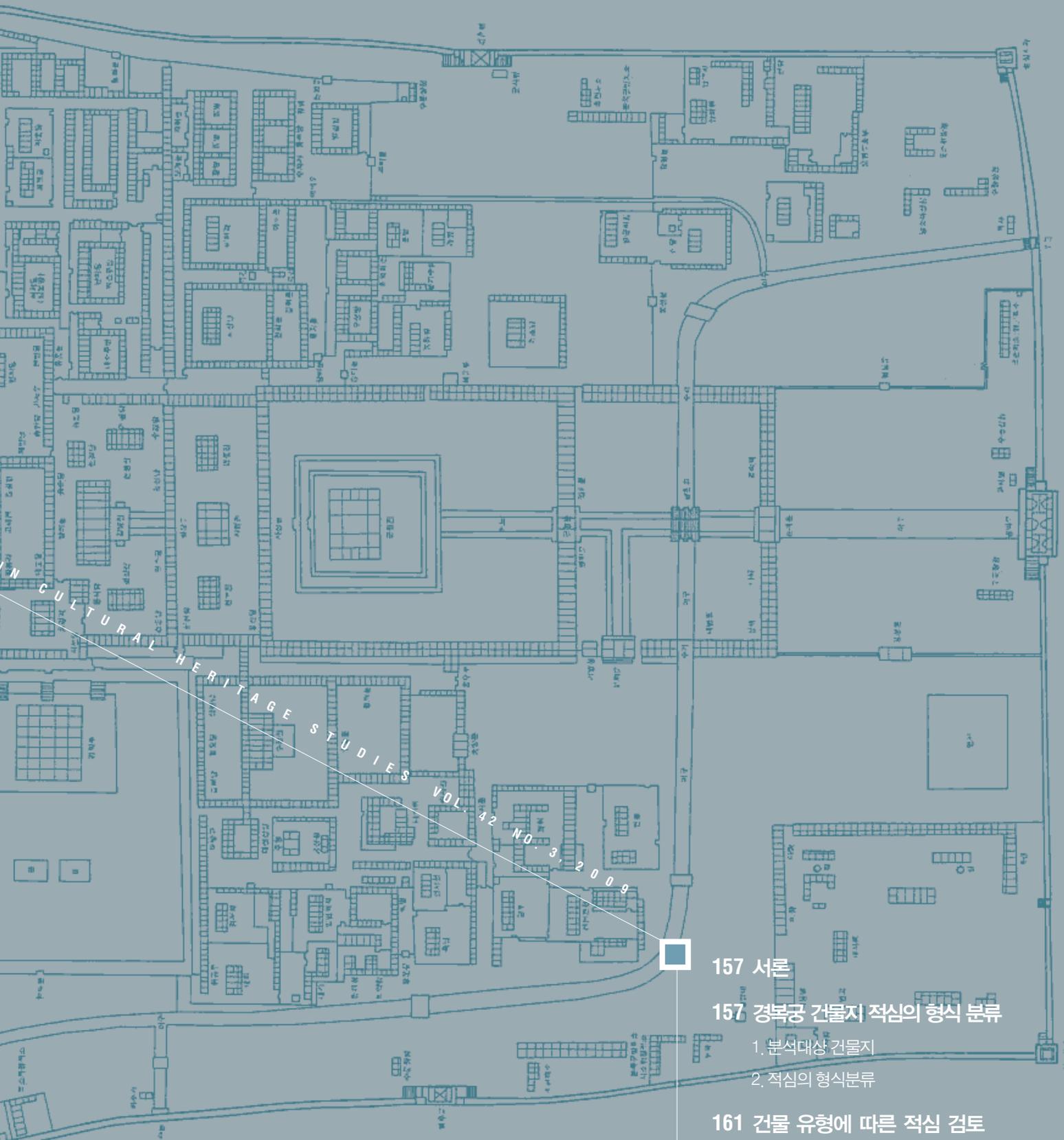
08

경복궁 건물 유형에 따른 적심 연구

최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ANNUAL REVIEW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2
NO. 3
2009

157 서론

157 경복궁 건물지 적심의 형식 분류

1. 분석대상 건물지
2. 적심의 형식분류

161 건물 유형에 따른 적심 검토

167 건물 유형별 적심의 변천양상

173 결론

경복궁 건물 유형에 따른 적심 연구

최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투고일자 : 2009. 07. 30 | 심사일자 : 2009. 08. 26 | 게재확정일자 : 2009. 09. 10

국문초록

현재 경복궁에 대한 연구는 건축사·문화사·미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는 현전(現傳)하는 건물과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궁궐 전체를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양호한 상태로 잔존해 있는 경복궁 건물지 유구, 특히 '적심(積心)'은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고고(考古)학 자료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복궁의 '적심'에 대하여 분석하여, 형태·규모·재료·축조방식에 따라 그 형식을 분류하고, 이것이 건물 기초로서 상부 건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궁궐 건물 유형별 사용된 적심을 검토하고, 시기별 변천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복궁 건물지 적심은 총 21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각 건물 유형에 따라 건물의 기초 즉 적심도 달리 축조되며, 시기별로도 적심의 축조방식 및 재료 등이 변화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적심의 형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복궁 적심은 평면 형태에 따라 원형(I), 말각방형(II), 세장방형(III), 방형(IV), 통적심(V)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시 축조방식과 사용된 재료에 따라 21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특히 조선전기 14~16세기에는 원형 잡석 적심(I-1), 말각방형 장대석(II-1), 말각방형 잡석+와전(II-2a) 세 가지 형식의 적심만 축조되다가, 조선 후기 19세기에 들어 21가지 분류한 모든 적심이 다양하게 축조된다. 19세기 고종연간 내에서도 연대별로 각기 다른 형식의 적심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재료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확인된다. 경복궁을 재건한 고종 2년(1865)~고종 5년(1868)에 축조된 적심 10가지 형식 중 무려 7가지가 와전편을 섞어 넣은 형식인 반면, 고종 10년(1873)과 고종 13년(1876) 혹은 고종 25년(1888)에는 축조된 5가지 형식 중 3가지가 강회를 섞어 넣은 사질토를 사용한 형식으로 대조를 이룬다.

궁궐 건물은 '주인의 신분과 용도'에 따라 건물의 서열이 정해지고, 건물의 이름 뒤에 가장 중요하고 격이 높은 순서대로 전(殿), 당(堂), 합(閣),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亭) 등의 명칭이 붙어 그 유형이 구분되며, 그 격에 맞추어 건축물이 축조된다. 이 건물 유형별 사용된 적심을 검토한 결과, 건물의 유형(전(殿), 당(堂), 합(閣),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亭))에 따라 그 기초, 즉 적심도 달리 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자료의 한계 상 '전', '당', '각', '방' 등 일부 건물 유형만 확인되었는데, '전'과 '각'의 경우 장대석으로 축조한 방형 적심(IV)이, '당'과 '방'의 경우 기와와 잡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말각방형 적심(II)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타 건물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대부분 조선전기 선대(先代) 건물지의 적심임으로, 조선 전기에 원형 잡석 적심(I-1)이 많이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인의 신분이 높고 격이 높은 건물일수록 건축물도 격이 높듯이, 그 기초부, 즉 적심 또한 가장 견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당'과 '방'은 같은 말각방형 적심이 사용되었지만, '당'은 잡석과 와전편을 주재료로 사용한 II-2a(잡석+와전편 말각방형 적심)형식이, '방'은 II-2a형식의 상면에 15~20cm 가량 와전편을 깐 II-2b(와전편+잡석+와전편 말각방형 적심)형식이 많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건물 유형별 적심은 시기별로 축조되는 형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과 '각'의 경우 모두 14~15세기 조선 전기에는 I-1형식(원형 잡석)의 적심을 축조하다가, 19세기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형식의 적심이 축조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방형 적심(IV)이 많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의 경우 조선 후기의 변천양상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종 4년(1867) 축조된 적심은 잡석과 와전편을 섞어 넣은 형식의 적심이 많이 축조되고, 이후 고종 13년(1876) 혹은 고종 25년(1888)에는 다른 건물 유형에서 확인되지 않는 강회사질토 및 탄축 적심이라는 독자적인 형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 전기에 비해 후기에 적심의 다양한 축조방식과 재료가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궁궐 건물 기초 축조 기술 수준의 변화가 있었음을 대변해 준다. 또한 건물 유형별로 사용되는 적심의 형식이 다른 것이 확인되어, 건물의 기초를 축조할 때 미리 계산된 건축 공법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조선, 경복궁, 건물기초, 적심, 궁궐 건물 유형

서론

조선시대의 궁궐은 대표적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경복궁⁰¹은 조선의 정궁(正宮)으로, 조선왕조의 개국에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과정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궁궐이며, 당시의 시대적 사상과 문화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당대 건축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경복궁은 태조 4년(1395) 창건된 이후, 명종 8년(1553년) 대화재로 주요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고 그 이듬해 명종 9년(1554)에 재건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년 후 임진왜란(선조 25년, 1592년)으로 인해 소실되어 274년간 사용되지 못하고 공궐(空闕)로 방치되다가, 고종 2년(186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건되게 된다. 하지만 원형을 되찾은 지 30여 년 만에 일제에 의해 또다시 훼손·철거되는 수모를 겪어, 현전하는 건물은 고작 12동,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

현재 경복궁에 대한 연구는 건축사·문헌사·미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과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궁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문헌 등 기록 자료들은 당대 사관(史官)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음으로 무조건 맹신할 수 없으며, 확인된 발굴 자료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일부 오류가 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⁰². 그리고 조선전기의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조선전기의 경복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복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경복궁 건물지 유구(遺構)가 바로 그것이다. 1990년부터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건물지 유구가 현재까지

양호한 상태로 간존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건물의 정확한 위치와 평면형태·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복궁 발굴조사 사례를 보면, 초석과 기단이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고, 적심(積心)만이 남아 이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아마도 일제가 경복궁을 계획적으로 훼손할 당시에 시설된 적심을 제외하고 지상에 노출된 초석과 기단 부까지 모두 철거·이전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건물의 최하단 기초부로 건물의 일부이기도 한 이 '적심'이 경복궁 건물지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고고(考古)학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건물의 적심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면, 비록 현재 남아있지 않은 건물이라도 적심을 통해 어떤 성격의 건물이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적심이 단순히 건물의 배치와 평면형태·규모(칸수) 등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형태·규모·재료·축조방식에 따른 다양한 형식을 정리·분석하고, 건물의 기초로써 해당 건물에 어떤 적심을 축조하였는지, 건물 유형별(‘전(殿), 당(堂), 합(閣),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亭) 등)로 사용된 적심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적심에 대해 고고학적, 문헌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편년을 시도하여, 건물 유형별 적심의 변천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경복궁 건물지 적심의 형식 분류⁰³

경복궁 건물 유형별 적심을 검토하기에 앞서 경복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적심의 형태·규모·재료·축조방식 등을 살펴보고, 형식을 분류해 보도록 한다. 먼저 본고의 분석대상 건물지는 다음과 같다.

01 사적 제117호

02 대표적으로 북궐도형(北闕圖形, 1907년경)과 발굴 유구와의 오차는 현재까지 발굴조사보고서에 소개된 칸수만 전체 36건에 달한다. 각 조사지별로 태원전지 14건, 건청궁지 2건, 소주방지 9건, 흥복전지 5건, 함화당·집경당 행각지 6건의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오차는 크게 ①주칸 크기, ②건물의 칸수, ③형태, ④위치, ⑤건물간 거리(축적), ⑥건물의 좌향(각도), ⑦기타 미기재·추가 기재된 부분(건물지, 문지 및 담장지 등) 등 총 7가지 부분에서 확인되며, 이 중에서도 오차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은 ⑤건물간 거리(축적)이다.

03 최인화, 2008, 6, 『조선의 정궁, 경복궁의 건물지에 대한 소고』, 『고고광장 2』, 부산고고학연구회, pp.145-150, 기 발표한 논문의 일부이나, III장, 건물 유형별 적심 검토 및 IV장, 건물 유형별 적심 변천양상에 분류한 적심의 형식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함에 따라, 본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보완하여 언급하였음을 밝혀둔다.

1. 분석대상 건물지

경복궁 발굴조사는 1990년부터 복원·정비를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2009년) 경복궁 전체 면적 343,888㎡(104,200평)의 약 30%인 111,606㎡(33,820평)에 대한 시·발굴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현재 발굴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 광화문권역(2006.10~2010 예정)을 제외하고 총 10곳으로, 각각의 개요와 위치는 다음과 같다. <표 1>, <그림 1>

본고에서는 발굴조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경복궁 침전지, 동궁지, 내사복지(조선왕궁역사박물관 건립지)⁰⁴, 훈국군영직소지, 태원전 권역, 건청궁 지역, 녹산 지역, 소주방지, 흥복전지, 함화당·집경당 행각지, 이상 10곳을 분석대상 건물지로 삼고, 그곳에서 확인된 모든 적심을 검토하였다. 단, 보고서 등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적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⁰⁵. 또한 공반 유물 분석 시 편년자료는 현재까지 조선시대 기와 편년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으로, 대부분 자기류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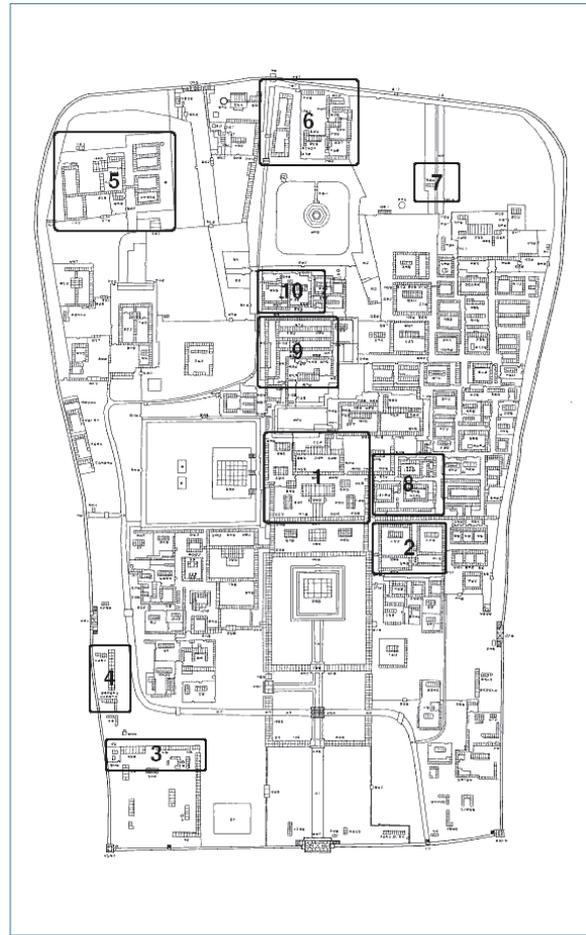


그림 1 분석대상 건물지(북경도형상 표시, 최인화, 2008: 25)

표 1 분석대상 건물지 개요(최인화, 2008: 24)

연번	조사지	면적	조사기간	조사기관	구분	
1	침전 지역	약 4,000평	1990.5~1991.7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	
2	동궁 지역	약 2,000평	1994.6~11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	
3	내사복 지역	약 100평	1994.9~10	국립중앙박물관	발굴	
4	훈국군영직소지	약 1,300평	1996	국립중앙박물관	발굴	
5	태원전권역	1차	1,220평	1997.10~1998.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
		2차	1차조사 시 제외된 부분	2000.11~12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기 전문문화재연구원	시굴
		3차	약 20,000평	2001.6~10	중앙문화재연구원	시·발굴
6	건청궁 지역	약 1,400평	2002.10~12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	
7	녹산 지역	약 300평	2003.10~12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발굴	
8	소주방지	약 1,500평	2004.4~2005.5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	
9	흥복전지	약 1,000평	2004.9~2006.10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	
10	함화당·집경당 행각지	약 1,000평	2005.5~2006.10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	

04 현 국립고궁박물관 자리

05 단, 동궁 지역 및 녹산 지역은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고 복원공사보고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약보고서만 있어, 발굴조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은 공개된 자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2. 적심의 형식분류

적심(積心)은 기둥이 올라가는 초석 아래에 시설되는 건물의 기초부로, 기둥에 전달되는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고 지반의 침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장에서는 분석대상 건물지에서 확인된 모든 적심을 대상으로, 경북궁 적심의 형식을 분류하도록 한다.

적심의 형식은 적심의 형태·규모·재료를 비롯하여 그것의 축조방식과 순서까지도 면밀히 분석하여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해당 적심이 확인된 층위 또한 하단에 병기하여 적심의 연대를 조선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였다⁰⁶. 조선전기 층위에는 공반유물이 확인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출토되는 경우 15~16세기 분청사기와 백자가, 조선후기 층위에는 19세기 청화백자를 비롯한 그 이전 시기 분청사기 및 백자도 다수 출토된다.

경복궁 적심은 대개 정지(整地)된 땅을 굴광(掘廣)하여 내부를 채우는 방식으로 축조된다. 사용되는 재료는 장대석, 잡석, 할석 등의 석재와 기와편과 전돌편 등 와전편(瓦塼片), 그리고 점토, 점질토, 마사토, 사질토 등의 흙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이는 적심마다 각기 다르게 조합되어 적심을 축조하게 된다. 간혹 자기편이 소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적심을 축조하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주재료가 아니며 같은 형식의 적심일 지라도 일관성 있게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심의 재료 분석 시에는 제외토록 한다.

적심의 형식은 우선 굴광한 평면 형태에 따라 원형(I), 말각방형(II), 세장방형(III), 방형(IV), 그리고 통적심(V)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다시 축조방식과 재료 그리고 재료를 축조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21가지 형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원형(I) 적심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잡석을 사용한 I-1형식, 잡석과 기와를 사용한 I-2형식, 강회와 사질토를 사용한 I-3

형식이다.

말각방형(II) 적심은 사용된 재료와 축조 방식에 따라 다섯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잡석을 사용한 II-1형식, 잡석과 와전편을 뒤섞어 사용한 II-2a형식, 역시 잡석과 와전편을 사용하되 잡석 상면에 와전편을 15~20cm 가량 깐 II-2b형식, 잡석과 와전편을 섞어 채운 상면에 회백색점질토를 깐 II-3a형식, 잡석과 와전편 회백색점질토를 차례로 채운 II-3b형식이 있다.

세장방형(III) 적심은 사용된 재료와 축조 방식에 따라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잡석과 와전편을 뒤섞어 사용한 III-1a형식, 역시 잡석과 와전편을 사용하되 잡석 상면에 와전편을 15~20cm 가량 깐 III-1b형식이 있다.

방형(IV) 적심은 장대석 혹은 장방형 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한 적심으로 축조방식과 재료에 따라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장대석을 남북방향으로 2~3매 놓고, 다시 그 위에 동서방향으로 장대석 2~3매 놓는 방식을 반복하여 마치 우물 井자 형태로 장대석을 켜켜이 쌓은 IV-1형식⁰⁷, 장대석과 그 이하에 다른 재료를 사용한 IV-2형식은 장대석 이하에 다른 재료로 잡석을 사용한 IV-2a, 잡석과 와전편을 섞어 사용한 IV-2b, 회백색 사질토를 사용한 IV-2c, 와전편과 잡석, 사질토를 번갈아 쌓은 IV-2d 형식이 있다. 또 장대석 이하 기둥이 올라가는 열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기초를 시설한 IV-3형식이 있는데, 암거형 배수로를 기초로 사용한 IV-3a형식, 탄축기초를 사용한 IV-3b형식이 있다.

통적심(V)은 건물 형태에 맞추어 전면에 적심을 시설한 경우로, 크게 건물 전면에 시설한 V-1형식과 기둥이 올라가는 열만을 굴광하여 시설한 V-2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V-1형식은 잡석을 채우고 그 상면에 와전편을 깔았으며, V-2형식은 다시 사용된 재료와 축조 방식에 따라 잡석과 그 상면에 와전편을 깐 V-2a형식, 잡석과 와전편을 뒤섞어 넣은 V-2b형식, 회백색 마사토만을 채워 넣은 V-3형식이 있다.

⁰⁶ 대상 시기는 조선시대 전반으로 하되, 경북궁의 영건 연혁 등에 근거하여, 크게 그 시기를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로 구분하고 조선전기는 임진왜란 이전 시기를, 조선후기는 고종연간 경북궁이 재건된 시기로 명명(命名)하기로 한다.

⁰⁷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대석을 쌓은 횡수는 2~5단으로 각기 다르며, 쌓는 방향(동서·남북)도 건물마다 다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IV-1형식 적심의 가장 상면 장대석은 건물의 면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놓인다. 즉 건물의 남면에는 남북방향으로, 동면에는 동서 방향으로 놓인다.

건물 유형에 따른 적심 검토

궁궐 건물은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그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와 재료·형태·양식상의 차이가 있다. 가령 임금이 거처하는 건물과 궁녀 등 신하들이 거처하는 건물은 그 규모나 형태, 지붕 및 공포 등 건축 양식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궁궐 건물은 '주인의 신분과 용도'에 따라 건물의 서열이 정해지고, 건물의 이름 뒤에 가장 중요하고 격이 높은 순서대로 전(殿), 당(堂), 합(閣),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亭) 등의 명칭이 붙어 그 유형이 구분되며⁰⁸, 그 격에 맞추어 건축물이 축조된다.

필자는 이와 같이 건물의 유형별로 해당 건축물의 차이가 있다면, 그 건물의 기초 또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전하는 경북궁의 건물은 전체 약 800여 동(7,481칸) 중 12동에 지나지 않지만, 나머지 건물의 기초들은 아직도 땅 속에 묻혀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의 기초들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면, 비록 현재 건물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이 어떠한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경북궁 건물의 기초, 즉 '적심'과 해당 건물에 대해 분석·정리하여, 각 건물의 유형별로 어떠한 형식의 적심을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궁궐 건물 유형별 성격과 용도를 살펴보자. 전(殿)은 궁궐의 여러 건물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건물로 주요한 의식 또는 왕이 참석한 조회 등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거나, 왕과 왕비 등이 거처하는 건물을 말한다. 당(堂)은 전에 비해 그 격이 한 단계 떨어지는 것으로 일상 업무를 하거나 기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며 주로 주전에 부속된 건물을 나타낸다. 합(閣)은 전이나 당에 부속되어 공공 용도로 사용되는 것보다 사적 용도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독립된 공간을 일컫는다. 각(閣)은 규모면에서 전이나 당보다는 떨어지며, 기거용보다는

왕실과 관련된 물건을 보관하거나 관측시설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등 실생활과 관련된 공간이다. 재(齋)는 숙식 등 평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주요 인물이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건물이다. 주로 출가하지 않은 대군, 공주, 옹주들의 집이거나 세자궁 소속의 인물들이 기거하는 집인 경우가 많다. 헌(軒)은 전의 좌우에서 이를 보좌하는 익각(翼閣)으로 때론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되며, 주인의 보조적인 공간 또는 특별한 인물의 전용 공간으로 활용된다. 누(樓)는 말 그대로 지면에서 높이 떨어져 마루로 되어 있는 형태의 장소를 가리키며 주로 내전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자리한다. 이와 달리 정(亭)은 후원에 따로 떨어져 위치하며 경관이 좋은 곳에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⁰⁹. 이 밖에 방(房), 소(所), 사(舍) 등이 있는데, 이는 소주방(燒廚房, 음식을 만드는 곳)·직소(直所, 수직군사(守直軍士) 등 군대와 관련 있는 곳) 등과 같이 모두 그 앞에 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이름을 붙여 그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분석대상 건물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건물의 유형별로 II장에서 검토한 적심의 형식을 대입하여, 건물의 유형별로 어떤 적심을 축조하였는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분석은 사용된 적심의 빈도수와 비중을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우선 II장에서 살펴본 분석대상 건물지를 궁궐 건물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표 3).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건물지 유형은 「전·궁·당·합·각·재·방·소」등 8가지가 있으며, 그 밖에 기록이 없어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지는 모두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는 대부분 조선후기 고종연간 건물지보다 아래층에서 확인된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발굴조사 당시 선대(先代) 건물지로 명명된 것들이다.

또한 특이하게 경북궁 안에는 「궁」이라고 이름 붙여진 건물이 있는데, 건청궁(乾淸宮)이 바로 그것이다. 건청궁(乾淸宮)은 고종 10년(1873년)에 향원정 북편 경

08 서윤영, 2005, 『사람을 담은 집, 세상을 담은집(사회를 비추는 거울, 집의 역사로 말한다)』, 서해문집.

09 서윤영, 2005, 前掲書.

표 3 건물 유형별 분석대상 건물지 분류

건물유형	적심형식	분석대상지	수량	합계
전	II-2a	흥복전지	1	14
	IV-1	강녕전지, 강녕전 동행각지, 연생전지, 경성전지, 태원전지	5	
	IV-2a	교태전지, 함원전지, 태원전 남행각지	3	
	IV-2b	흥복전 동행각지, 흥복전 서외행각지	2	
	IV-2d	흥복전 중행각지, 흥복전 (중행각의)북행각지	2	
	V-1	흥복전지	1	
궁	IV-2c	건청궁 남행각지	1	1
당	I-1	자선당 동행각지	1	22
	I-3	집경당 증축 남행각지	1	
	II-2a	함화당 서행각지, 함화당 남행각지, 함화당 남외행각지, 집경당 동행각지, 집경당 남행각지, 집경당 북행각지	6	
	II-2b	복회당지, 복회당 동행각지, 복회당 서행각지, 복회당 남행각지, 복회당 동외행각지	5	
	III-1a	집경당 북행각지	1	
	III-1b	복회당지, 복회당 동행각지	2	
	IV-1	연길당지, 응지당지, 장안당지	3	
	IV-2d	회광당, 광원당	1	
	IV-4	집경당 증축 남행각지	1	
	V-2b	복회당 동외행각지	1	
합	I-1	근녕합지	1	5
	II-2a	근녕합 동행각지	1	
	IV-2b	근녕합지	1	
	IV-2c	근녕합 서행각지	1	
	V-3	근녕합지	1	
각	I-1	흥경각지	1	3
	IV-1	비현각지, 비현각 서행각지	2	
재	I-2	영사재지	1	4
	II-1	영사재 동행각지	1	
	IV-1	영사재 동행각지	1	
	V-2a	공목재 북행각지	1	
방	I-1	내소주방 남행각지	1	16
	II-1	내소주방 남외행각지, 흥복전 소주방지	2	
	II-2a	내소주방지, 내소주방 동행각지	2	
	II-2b	북측세답방지, 외소주방지, 외소주방 동행각지, 외소주방 남행각지, 외소주방 남외행각지, 외소주방 동외행각지	6	
	II-3a	동측세답방지, 북측세답방지	2	
	III-1b	외소주방지	1	
	IV-1	서측세답방지	1	
	IV-3	내소주방 남행각지	1	
소	II-3b	훈군군영직소지	1	1
기타 (건물명 알수없음)	I-1	강녕전 선대건물지, 연생전 선대건물지, 경성전 선대건물지, 교태전 선대건물지, 함원전 선대건물지, 흥경각 선대건물지, 훈군군영직소 선대건물지 B·C	8	14
	II-1	함화당·집경당 선대건물지 가·나	2	
	II-2a	함화당·집경당 선대건물지 다·라·마	3	
	V-2b	함화당·집경당 선대건물지 다	1	
합 계				80

복궁 후원 구역에 건립된 건물로,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꾀하기 위하여 고종이 비밀리에 지은 궁중궁(宮中宮)이다.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왕후

의 침전으로 사용되어 그 격이 전(殿)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당시 사용된 명칭 그대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4 건물 유형에 따른 적심 분류(* 음영처리부분: 각 건물 유형별 가장 많이 사용된 적심형식)

적심 형식	건물 유형																		
	전		궁		당		합		각		방		재		소		기타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원형	I-1					1	4.5%	1	20.0%	1	33.3%	1	6.3%					8	57.1%
	I-2												1	25.0%					
	I-3					1	4.5%												
말각 방형	II-1											2	12.5%	1	25.0%			2	14.3%
	II-2a	1	7.1%			6	27.3%	1	20.0%			2	12.5%					3	21.4%
	II-2b					5	22.7%					6	37.5%						
	II-3a											2	12.5%						
	II-3b															1	100%		
세장 방형	III-1a					1	4.5%												
	III-1b					2	9.1%					1	6.3%						
방형	IV-1	5	35.7%			3	13.6%			2	66.7%	1	6.3%	1	25.0%				
	IV-2a	3	21.4%																
	IV-2b	2	14.3%					1	20.0%										
	IV-2c			1	100%			1	20.0%										
	IV-2d	2	14.3%			1	4.5%												
	IV-3											1	6.3%						
	IV-4					1	4.5%												
통적심	V-1	1	7.1%																
	V-2a												1	25.0%					
	V-2b					1	4.5%											1	7.2%
	V-3							1	20.0%										
합계	14		1		22		5		3		16		4		1		14		

그 밖에 분석 시 고려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지 선정 시 발굴조사에 의해 건물명 추정이 확실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건물에 부속된 행각 또한 본 건물의 명칭에 따라 분류, 각각의 독립된 건물로 간주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같은 건물지 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적심이 사용된 경우, 이 또한 해당 건물에 모두 사용된 적심임으로 이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조건들을 전제로 건물의 유형별로 해당 건물지의 적심 형식을 대입하여 보면 위와 같다(표 4).

〈표 4〉에서 각 건물의 유형별로 나타나는 적심의 형식을 빈도수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백분율)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 ‘당’, ‘각’, ‘방’, ‘기타’ 건물 유형별로 특정 형식의 적심을 과반수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의 유형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적심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궁·소의 경우 분석대상 건물지가 1개 밖에 되지 않아 비교대상이 없어, 특정 적심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합·재의 경우 원형(I), 말각방

형(II), 방형(IV), 통적심(V)이 모두 비슷한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나, 분석대상 건물지가 각각 5개, 4개로 그 수가 많지 않아 특정 패턴으로 단정 짓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특정 적심이 과반수이상 확인된 ‘전’, ‘당’, ‘각’, ‘방’, ‘기타’ 건물 유형별로 어떤 적심이 사용되었는지, 그래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殿」의 경우 방형 적심(IV)이 사용된 예가 85.7%로 압도적이다(그림 3). 즉 장대석을 사용하여 축조된 적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각방형(II), 통적심(V)이 각각 7.14%로 동등한 비율을 차지한다. 방형 적심 중에서도 장대석만 사용하여 축조한 적심(IV-1)이 35.7%로 가장 많고, 장대석+잡석(IV-2a) 적심이 21.4%, 장대석+잡석+기와(IV-2b) 적심, 장대석+(잡석+황토+기와)(IV-2d) 적심이 각각 14.3%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

한편 ‘전’ 유형 건물 중에서도 침전지와 태원전지의 적심은 장대석과 잡석만으로 축조된 방형 적심(IV)이 주로 축조되는데 비해, 흥복전지의 적심은 장대석과 잡석에 와전편을 섞어 축조된 점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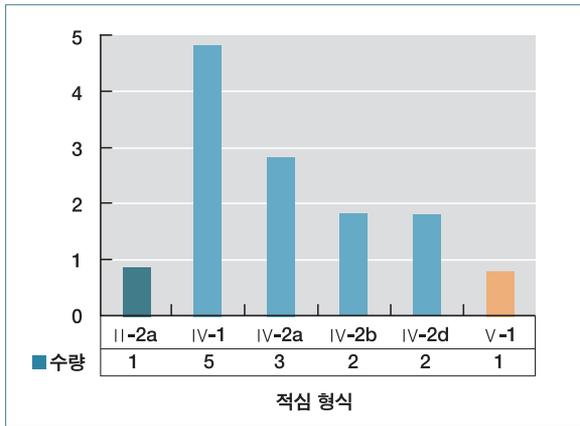


그림 2 「殿」에 사용된 적심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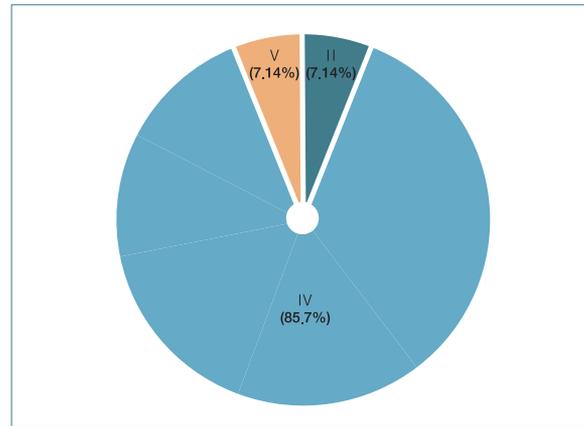


그림 3 「殿」의 적심 형식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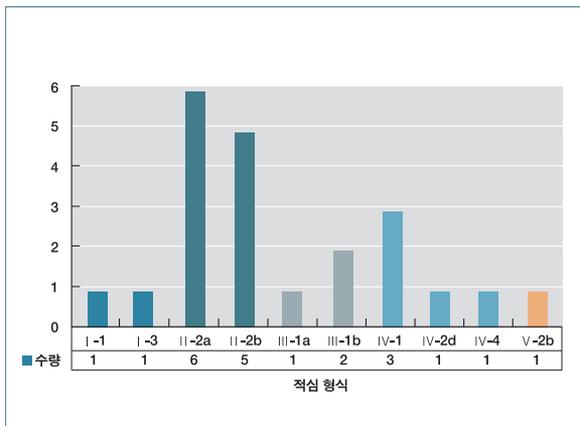


그림 4 「堂」에 사용된 적심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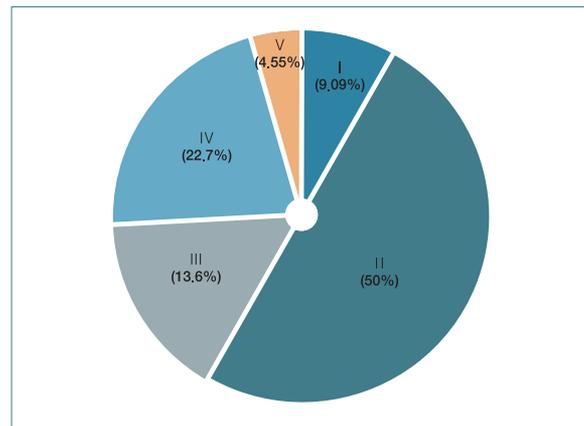


그림 5 「堂」의 적심 형식별 비율

은 건물 유형 내에서도 건물의 용도와 중요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적심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堂」의 경우 말각방향 적심(II)이 사용된 예가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방향 적심(IV) 22.7%, 세장방향 적심(III) 13.6%, 원형 적심(I) 9.09%, 통적심(V) 4.55%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형식(I~V)의 적심이 사용된 건물 유형은 '당'이 유일하다 할 수 있겠다(그림 5).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말각방향 적심 중에서도 잡석+기와(II-2a) 적심이 2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와+잡석+기와(II-2b) 적심이 2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형식은 상면에 기와를 10~20cm 간 것(II-2b)과 안 간 것(II-2a)의 차이가 있지만, 그 축조방식과 재료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 방향 적심 중에는 장대석(IV-1) 적심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밖의 형식은 대부분 비슷한 빈도로 확인되

었다(그림 4).

「閣」의 경우 분석대상 건물지가 3개로, 그 특징을 단정하기에는 현재로서 부족함이 따른다. 특히 분석 대상 건물지 중 비현각의 경우, 보고서에 도면만 제시되어 있을 뿐 적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재료로 축조되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 도면에 있는 모든 적심을 분석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은 사용된 비중이 높은 특정 적심의 형식이 확인됨에 따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閣」은 방향 적심(IV)의 비중이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장대석만 사용하여 축조한 적심(IV-1)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원형 적심(I)이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잡석을 사용한 적심(I-1)에 해당한다(그림 6). 이처럼 장대석 방향 적심(IV-1)이 가장 많이 사용된 건물 유형은 '전'으로, '전'보다 서열이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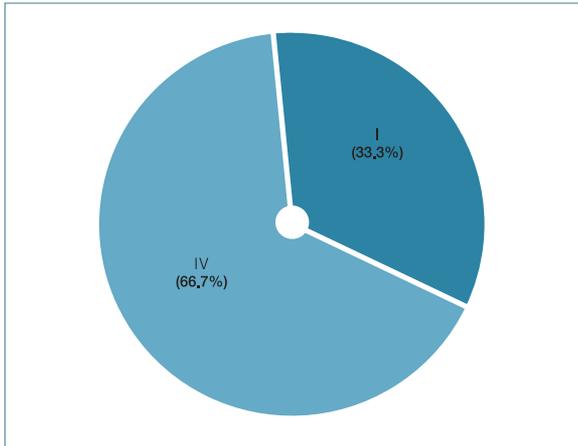


그림 6 「관」의 적심 형식별 비율

‘각’ 건물 유형이 ‘전’ 과 유사한 성격의 적심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궁의 비현각에서 방형 적심(IV-1)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비록 ‘각’ 이 왕실 물건을 보관하거나 관측시설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비현각과 같이 예외적으로 ‘전’ 의 격을 갖춘

중요한 용도의 건물인 경우 그 성격과 규모·형태에 맞게 기초를 시설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 자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되면 다시 분석하여 이러한 패턴이 확인되는지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房」의 경우 말각방형 적심(II)이 전체 75%로 압도적인 비율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방형 적심(IV) 12.5%와 원형 적심(I), 세장방형 적심(III)이 각각 6.25% 사용되었다(그림 8).

말각방형 적심 중에서도 기와+잡석+기와(II-2b) 적심이 37.5%로 가장 많고 잡석 적심(II-1), 잡석+기와 적심(II-2a), 마사+잡석+기와 적심(II-3a)이 각각 12.5%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말각방형 적심 형식 5가지 중 4가지가 사용된 것으로, 가장 다양하게 말각방형 형식의 적심을 사용한 예라 할 수 있다(그림 7). 따라서 ‘방’ 건물 유형은 특히 말각방형 형식의 적심(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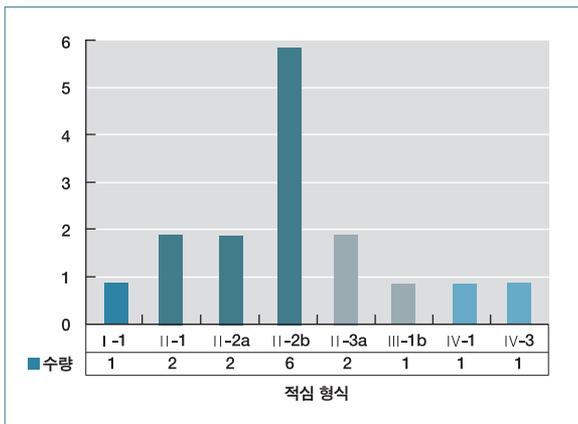


그림 7 「房」에 사용된 적심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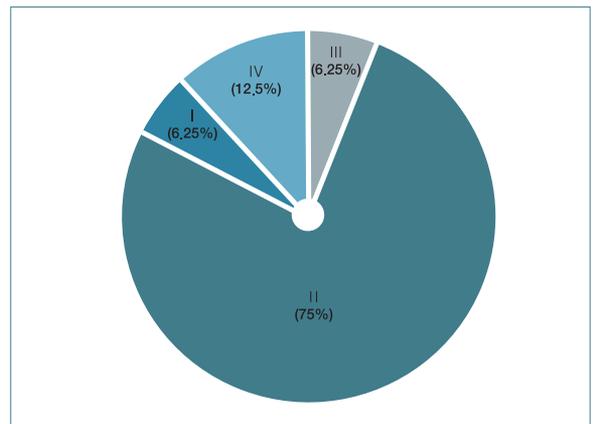


그림 8 「房」의 적심 형식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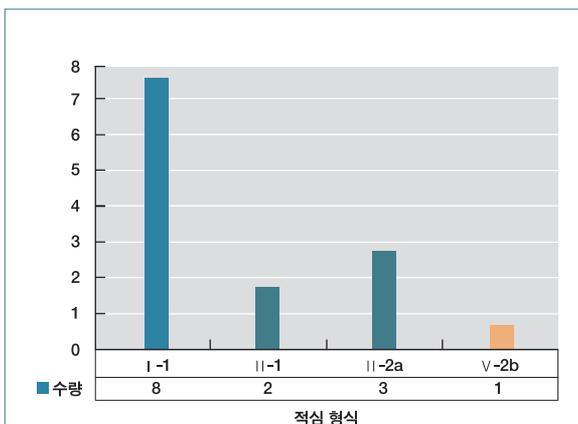


그림 9 「기타」에 사용된 적심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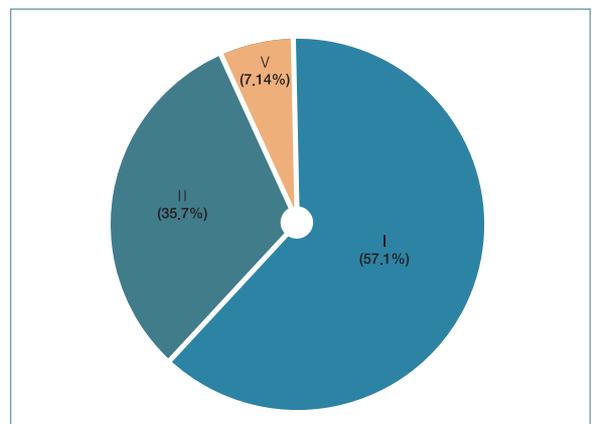


그림 10 「기타」적심 형식별 비율

을 다양한 재료와 축조방식을 사용하여 시설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경우 원형 적심(I)이 전체 57.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말각방향 적심(II)이 35.7%, 통적심(V) 7.14%의 비율로 사용되었다(그림 10).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형 적심은 모두 잡석을 층층이 축조한 방식(I-1)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9).

「기타」건물 유형은 건물명을 알 수 없어, 어떤 건물의 적심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석대상 건물지가 대부분 선대(先代) 건물지임으로, 건물 유형에 따른 특징이라기보다는 적심의 축조연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는 대부분 임진왜란 이전 시기 조선 전기 적심임으로, 이 시대의 적심은 원형 잡석 적심(I-1)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건물의 유형별로 사용된 적심의 형식을 검토한 결과, 건물의 유형에 따라 그 기초도 달리 축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과 「각」의 경우 장대석으로 축조한 방형 적심(IV)이, 「당」과 「방」의 경우 기와와 잡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말각방향 적심(II)이 많이 사용되었다. 「기타」 건물의 경우 건물 이름을 알 수 없어 어떤 건물 유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조선 전기 선대(先代) 건물지의 적심임으로, 조선전기에 원형 잡석 적심(I-1)이 많이 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형 적심이 많이 축조된 「전」과 「각」의 경우, 특히 장대석만을 주재료로 사용한 IV-1(장대석 방형 적심) 형식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말각방향 적심이 많이 축조된 「당」과 「방」의 경우, 「당」은 잡석과 와전편을 주재료로 사용한 II-2a(잡석+와전편 말각방향 적심)형식이 가장 많았고, 「방」은 II-2a형식의 상면에 15~20cm 가량 와전편을 깔 II-2b(와전편+잡석+와전편 말각방향 적심) 형식이 많았다. 이처럼 같은 형식의 적심을 사용한 경우에도 건물 유형별로 사용된 재료와 축조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 유형별 적심 검토에서 확인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궁궐 건물 중 가장 격이 높은 「전(殿)」에 사용된 적심이 그에 걸맞게 가장 좋은 재료로 견고하게 축조된 점이다. 「전」은 장대석 방형 적심(IV-1)이 86.7%로 압도

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주재료인 장대석은 잡석과 기와에 비하여 귀하고, 가공 또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축조 방식 또한 장대석을 우물 '井' 자식으로 켜켜이 쌓는 것이나, 그 사이에 초석이나 기단과 같이 수평을 맞추기 위한 고임들을 놓고, 황색점토를 바르는 일련의 작업은 한꺼번에 잡석과 기와 등을 채워 넣는 다른 적심의 축조 방식에 비해 몇 배의 공력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그에 비해 「당」과 「방」은 골광하여 한꺼번에 잡석과 와전편 등을 섞어 넣는 방식의 말각방향 적심(II)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각」은 「전」 그리고 「당」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건물이나 「전」과 같이 방형 적심(IV)을 많이 사용하는 의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비현각처럼 중요한 용도로 사용된 건물일 경우 예외적으로 건물유형보다는 그 격에 맞추어 기초를 축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자료가 3개 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향후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되면 재검증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 자료 내에서의 분석 결과, 주인의 신분이 높고 격이 높은 건물일수록 건축물도 격이 높은 양식을 취하듯이 그 기초부, 즉 적심의 축조방식 또한 가장 견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 경복궁 건물 유형별 사용된 적심을 검토해 보았다. 현재 모든 건물 유형에 대입시킬 수 있는 발굴조사 자료가 충분치 않아 전체 건물 유형의 적심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발굴 성과가 축적되면 모든 건물 유형에 사용된 적심을 분석하여 보다 다양한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건물 유형」에 따라 이와 같은 분석을 시도하여 보았지만, 적심과 같은 기초가 상부 건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축조되는 것인 만큼 그와 관련 있는 건물의 여러 가지 속성들과도 연관시키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건물의 형태와 규모·높이 혹은 지붕의 형태와 크기, 기둥과 공포의 종류와 형식 등과 같은 것들과 말이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가 축적된다면, 현재 건물이 남아 있지 않아 어떤 형태의 어떤 이름의 건물인지 모르더라도, 그 기초의 분석을 통하여 해당 건물의 정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건물 이름과 성격을 알 수 있는 경복궁과 같은 궁궐건물을 시작으로, 사찰·관아 등 다양한 성격, 다양한 시대의 건물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목조 건축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건물의 기초 즉 지하에 묻혀 있는 '건물지 유구' 만이 이러한 역사를 구체적으로 복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것이다.

건물 유형별 적심의 변천양상

경복궁은 태조 4년(1395) 창건된¹⁰ 이후 크고 작은 소실과 재건이 반복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창건 이후 새로운 건물이 증축되거나, 정비되기도 하였다. 태종대에는 경복궁 입지의 적정성 문제로 개경으로 천도함에 따라 10여 년간 버려지게 되나 이후 환도(還都)하여 명당수를 금천(禁川)으로 끌어들이고¹¹ 경회루를 세우는 등 궐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세종대에 이르러 오례(五禮)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궐내 각 문과 다리의 이름을 명명하는 등 제

반 시설을 신설·정비하여 비로소 조선의 법궁(法宮)으로써의 체제를 완비하였다¹². 이 때 신설된 건물로 자선당, 계조당, 흥경각, 문소전, 교태전, 함원전 등이 있으며, 궁성 북문(北門)인 신무문이 신설되어 궁성 4문 체제를 완성하였다.

명종 8년(1553년)에는 내장고(內藏庫)에서 일어난 화재로 근정전, 함원전, 경회루, 청연루를 제외한 주요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었고¹³, 그 이듬해 명종 9년(1554년)에 재건되었다¹⁴.

그러나 재건된 지 채 40년도 되지 않아, 임진왜란(선조 25년, 1592)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되었고, 이후 273년 동안 재건되지 못하고 공궐(空闕)로 방치되었다.

고종 2년(1865년) 마침내 경복궁의 재건이 시작되고 15 3년여의 공사 끝에 고종 4년(1867년) 완공된다. 고종 연간에는 그 이전보다 많은 건물이 중창(重創)되었다. 강녕전 좌우에 연길당과 응지당이 추가되었고, 아미산 뒤편 후원에 흥복전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건립되었다. 새로이 연못을 파고 향원정을 세웠고, 건천궁, 선원전, 집옥재 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궁성 북문(北門)인 신무문 밖에 후원(後苑)을 만들고 용문당, 용무당, 경농재, 오운각 등을 신설하였다¹⁶.

이상의 경복궁 중건 역사(役事)는 다음과 같이 크게

10 『太祖實錄』卷 8, 太祖 4年 9月 29日(乙亥)

『是月, 太廟及新宮告成.』 '이달에 대묘(太廟)와 새 궁궐이 준공되었다. ...'

11 『太宗實錄』卷 22, 太宗 11年 9月 5日(癸亥)

『命鑿景福宮城西隅, 引入明堂水于禁川.』

『경복궁(景福宮) 성 서쪽 모퉁이를 파고 명당(明堂) 물을 금천(禁川)으로 끌어들이라고 명하였다.』

12 『世宗實錄』卷 34, 世宗 8年 10月 26日(丙午)

『命集賢殿修撰, 定景福宮各門及橋名. 勤政殿前第二門曰弘禮, 第三門曰光化, 勤政殿東廊夾門曰日華, 西曰月華. 宮城東曰建春, 西曰迎秋. 勤政門前石橋曰永濟.』

『집현전 수찬(修撰)에게 명하여 경복궁 각 문과 다리의 이름을 정하게 하니, 근정전(勤政殿) 앞 뜰에 문을 흥례(弘禮), 세째 문을 광화(光化)라 하고, 근정전(勤政殿) 동랑(東廊) 협문(夾門)을 일화(日華), 서쪽 문을 월화(月華)라 하고, 궁성(宮城) 동쪽을 건춘(建春), 서쪽을 영추(迎秋)라 하고, 근정문(勤政門) 앞 석교(石橋)를 영제(永濟)라 하였다.』

13 『明宗實錄』卷 15, 明宗 8年 9月 14日(癸丑)

『丁巳/景福宮大火. (太祖即位三年, 所創康寧 思政二殿及欽敬閣皆燒盡. 自祖宗朝所傳珍寶, 書籍, 與大王大妃諸命, 服御等物, 亦盡爲灰燼. ...)』

『경복궁(景福宮)의 대내(大內)에 불이 났다. (태조가 즉위한 뒤 3년에 창건한 강녕전(康寧殿)·사정전(思政殿)·흥경각(欽敬閣)이 모두 불타 버렸다. 이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전해 오던 진보(珍寶)와 서적 및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고명(謄命)과 복어(服御) 등도 모두 재가 되고 말았다. ...)』

14 『明宗實錄』卷 17, 明宗 9年 9月 18日(丙辰)

『丙辰/景福宮成. (前年十月火起內藏庫, 盡灰大內, 祖宗宮闕焚蕩盡矣. 今年春始命改造, 至是成. 自上督之甚急, 故其功役甚速.』

『경복궁(景福宮)이 완성되었다. (지난해 11월에 내장고(內藏庫)에서 불이 나 대내(大內)가 모두 재가 되었다. 조종들이 세운 궁궐이 모두 타버렸는데 올봄에 비로소 다시 짓도록 명하여 이에 이르러 완성된 것이니, 상에서 독촉했기 때문에 공사가 매우 빠르게 된 것이다.』

15 『高宗實錄』卷 2, 高宗 2年 4月 2日(丙寅)

『初二日. 大王大妃教曰: “景福宮, 卽我朝定鼎初首建之正衙也. 規模之正大, 位置之整肅, 仰見聖人心法, 而政令施爲, 無一不出於正, 八域蒼生, 咸蒙福佑, 自此宮始焉. 不幸火燹之後, 迄未重建, 久爲志士之嗟歎. 今因政府之重修, 每德國朝盛時, 民物之殷盛, 明良之登庸, 益切欽誦羨慕之心. 仍念翼廟代理之年, 屢幸舊闕, 周審基址, 慨然有重營之志, 而未卒焉. 憲廟屢欲繼述志事, 而又未及舉. 嗚呼! 若有待於今日矣. 今我主上, 自在潛邸, 亦嘗遊覽. 而近日每歎祖宗御此宮時太平氣象, 何爲而今不如古乎? 此不但肯堂肯構之聖意也, 有以見度量之弘大. 是惟生靈之福, 而無疆之基, 實基於此. 予心不勝慶幸. (重建此宮以恢中興大業. 不可不與諸大臣謀之, 時原任大臣, 明日賜饌後留待. ...)』 '...[이 궁전을 다시 지어 중흥의 큰 업적을 이루려면 여러 대신들과 함께 타산해보지 않을 수 없으니 내일 음식을 내린 다음에도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은 머물러서 기다리라.]

16 이강근, 1998, 『경복궁』, 대원사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 1단계: 태조 4년(1395) ~ 명종 8년(1553)
- 2단계: 명종 9년(1554) ~ 선조 25년(1592)
- 3단계: 고종 2년(1865) ~ 1915년 전후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소실과 재건이 반복되었던 경복궁의 역사는 발굴을 통해 확인되는 건물지 유구에서도 증명된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경복궁의 역사와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경복궁 건물 유형별 적심의 편년을 시도하여, 건물 유형별로 적심이 축조되는 변천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우선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II장에서 살펴본 분석대상 건물지 적심의 형식별 편년을 설정하고, 자세한 편년이 불가능한 고고학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를 다시 문헌에 기록된 건물의 축조연대에 대입하여 실연대에 따른 적심의 형식을 편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 검토한 궁궐 건물의 유형별로 적심을 재편년하여, 각 건물 유형별 적심의 변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 2>에서 적심의 형식분류와 함께 제시한 층위를 통해 크게 조선전기 적심과 조선후기 적심을 구분할 수 있다. 조선전기에는 I-1(원형 잡석 적심)과 II-1(말각방향 잡석 적심), II-2a(말각방향 잡석+와전편 적심) 세 가지 형식의 적심이 사용되었다. 공반 유물은 15~16세기 분청사기와 백자로 극히 소량만 출토되거나, 전혀 출토되지 않는다. 조선후기에는 I-1~V-3 형식까지 분류한 모든 적심이 사용되었다. 공반 유물은 19세기 청화백자를 비롯하여 그 이전 시기 분청사기 및 백자까지 다양하게 확인된다.

조선전기와 후기 적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다양한 형식의 적심이 축조되고, 사용되는 재료 또한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잡석과 황색점토만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해, 조선후기에는 잡석과 황색점토 외에도 와전편과 강회 혹은 마사토, 자기편 등을 함께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¹⁷. 이러한 변화는 당대 건축 기술의 변화와 함께 건축자재 및 이를 공급하는 체계, 공사를 담당하는 기관, 당시 경제 상황과 제도, 사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편년한 적심을 분석대상 건물지 10곳의 문헌기록과 함께 비교하여 건물의 창건과 소실·재건·중창 등의 실연대에 따라 보다 세밀한 편년을 시도하겠다.

분석대상 건물지 중 조선전기 태조연간에 건립된 건물은 강녕전·연생전·경성전이 있으며, 이 중 강녕전은 세종 15년 닛고, 좁다는 이유로 중창되었다¹⁸. 이후 세종 20년 흙경각이¹⁹, 세종 22년 교태전이²⁰ 새로이 중건되었다. 흙경각 남쪽에 위치하는 함원전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세종 31년부터 실록에 등장하고 있어 흙경각과 교태전이 조성되는 시기에 함께 중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궁인 자선당과 비현각은 각각 세종 11년, 세조 9년부터 실록에 등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다. 특히 비현각은 비현함으로도 불렸는데, 이는 사정전 동쪽 모퉁이에 있던 건물로 현재 발굴조사지의 건물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내사복 또한 세종 15년부터 실록에 등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이 후 이 건물들은 명종 8년에

17 와전편을 함께 넣어 축조한 적심이 전체 47%, 그 밖에 강하나 마사토를 사용하여 축조한 적심이 전체 12%임.

18 『世宗實錄』 卷 61, 世宗 15年 7月 21日(癸丑)

“...康寧殿, 非予私有, 乃傳之萬世之寢殿也, 而卑陝且暗. 若至老耄居此殿 則必難見細孔, 不能處決萬機, 予欲改造, 傳之後世, 如何?” 僉曰: “可...”

“...강녕전(康寧殿)은 나만이 가질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대에 전할 침전(寢殿)인데, 닛고 좁고 또 어두워서 만일 늙어서까지 이 침전에 거처하면 반드시 잔글씨를 보기가 어려워서 만 가지 정무를 처리할 수가 없을 것이니, 내가 고쳐지어서 후세에 전해 주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19 『世宗實錄』 卷 80, 世宗 20年 1月 7日(戊午)

‘欽敬閣成. 大護軍蔣英實經營之, 其規模制度之妙, 皆出睿裁, 閣在景福宮燕寢之傍. 上命右承旨金墩, ...’

‘흙경각(欽敬閣)이 완성되었다. 이는 대호군 장영실(蔣英實)이 건설한 것이나 그 규모와 제도의 묘함은 모두 임금의 미려한 것이며, 각은 경복궁 침전 곁에 있었다. 임금이 우승지 김돈(金墩)에게 명하여 기문을 짓게 하니, ...’

20 『世宗實錄』 卷 90, 世宗 22年 9月 6日(庚申)

‘兩宮移御于東宮, 以將營交泰殿也.’

‘양궁(兩宮)의 처소를 동궁(東宮)으로 옮겼으니, 장차 교태전(交泰殿)을 지으려고 함이었다.’

표 5 분석대상 건물지의 중건 역사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침전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		태조 4년 1395	명종 9년 1554	신조 25년 1592		고종 10년 1873, 12.1 고종 13년 1876, 11.4	1917
	교태전		세종 22년 1440					
	흠경각		세종 20년 1438, 1.7					
	함원전	 세종 31년 1449					
	연길당							
	응지당							
동 궁	비현각						
	자선당	 세종 11년 1429					
흥복전	흥복전, 회광당 광원당, 소주방					고종 4년 1867		1916-1917
함화당 집경당	동·서·남 북행각							1916-1917
태원전	영사재, 공목재 동축·서축·북축 세답방					고종 5년 1868	고종 29년 1891 고종 32년 1886, 10	1910-1920
건청궁	건청궁, 곤녕합 장안당					고종 2년 1873		1935
내사복	추정 연고	 세종 15년 1443					1915-1917

일어난 경북궁의 대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그 이듬해 다시 중건된다. 그러나 중건된 지 39년이 지난 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경북궁이 전소됨에 따라 다시 소실된다.

조선후기 고종연간에는 274년이란 공궐 기간의 마침표를 찍는 대대적인 재건이 이루어졌다. 분석대상 건물지 10곳 모두 이 시기에 재건 또는 신축되었으며, 연도별 중건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종 2년(1865) 재건을 시행한 해에 침전인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 교태전, 함원전, 흠경각이 중건되었으며, 이때 연길당과 응지당이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고종 4년(1867) 흥복전을 비롯한 함화당²¹, 집경당, 소주방, 훈국군영직소, 내사복 등이 중건된 것으로 추정된다²². 고종 5년(1868) 태원전이 중건되고, 고종 10년(1873) 건청궁이 중건되

었다. 이 후 고종 10년(1873. 12. 10)과 고종 13년(1876. 11. 4) 크게 두 차례의 화재가 발생하여, 정전을 중심으로 한 주변 전각들의 소실과 재건이 반복되었다. 이후 경북궁은 1910년~1935년 사이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40여년의 짧은 역사를 뒤로한 채 12동의 건물만을 남긴 채 모두 훼손되게 된다.

이상 분석대상 건물지의 중건 역사를 정리하면 위 <표 5>와 같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의 한계상 모든 건물의 축조 연대를 알 수는 없다. 훈국군영직소, 내소주방, 외소주방, 복회당, 비현각과 자선당, 내사복 연고의 경우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창건 연대를 알기 어렵다. 그리고 함화당·집경당 선대 건물지(가·나·다·라·

21 2007년 1월 함화당 보수 공사 도중, 상층 종도리 하단의 장여 중앙부(북측면)에서 상량문(上梁文, 1,326×96㎝)이 발견되었다. 상량문에 기록된 건물의 중건연대는 고종 27년(1890)이었다. 그러나 분석대상 건물지인 함화당과 집경당의 행각지에서 고종연간의 적심이 2~3차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헌기록상으로도 고종연간 있었던 크고 작은 화재로 수차례 재건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고종 27년 이전에도 건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22 『承政院日記』, 高宗 4年 8月 18日(丁卯)
영건도감이 각 전당의 전호와 당호 및 각문의 이름을 별단에 써 들었다. 자경전의 누각은 청연루(淸謙樓), 북쪽 상실(上室)은 순희당(純熙堂), 서쪽 소침(小寢)은 석지당(錫趾堂), 중앙의 소침은 덕필당(德必堂)·만경전(萬慶殿)·흥복전(興福殿)·만화당(萬和堂)이었다.···

표 6 문헌기록에 따른 해당 건물의 적심 편년

구분	연대	적심형식				
		I(원형)	II(말각방향)	III(세장방향)	IV(방향)	V(통적심)
조선전기	태조 4년(1395)	I-1				
	세종20년(1438)	I-1				
	세종22년(1440)	I-1				
조선후기	고종 2년(1865)				IV-1, IV-2a	
	고종 4년(1867)		II-1, II-2a	III-1a	IV-2b, IV-2d	V-1
	고종 5년(1868)	I-2	II-1, II-2b II-3a		IV-1, IV-2a	V-2a
	고종10년(1873)	I-1	II-2a		IV-2b, IV-2c	V-3
	고종13년(1876)혹은 고종25년(1888)	I-3			IV-3b	

마)의 경우 어떤 건물인지 알 수 없으므로 역시 연대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상에서 언급한 건물지는 분석에서 제외토록 한다.

이상 문헌기록에서 확인된 건물의 축조 연대에 각 분석 대상지의 적심을 대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6〉에서와 같이 문헌기록상 건물의 실연대에 대입하여 보다 세밀한 적심의 편년이 가능한데, 이를 바탕으로 적심의 각 시기별 특징과 변천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전기에는 I-1형식의 적심이 사용되었는데, 문헌과 대조한 건물지는 침전지 선대건물지 6동(강녕전, 연생전, 경성전, 교태전, 함원전, 흙경각)으로, 〈표 5〉에서와 같이 축조시기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같은 형식의 적심을 사용하고 있다. 강녕전지의 경우 3개의 선대 건물지가 중첩되어 있었고, 나머지 다섯 건물은 1~2개의 선대 건물지가 고종연간 건물지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강녕전지에서 확인된 3개의 건물지는 태조 4년(1395) 창건된 이후 세종 15년(1443) 중창되고, 명종 8년(1553) 경복궁의 대화재로 불타고, 그 이듬해 명종 9년(1554) 재건된 문헌기록상의 역사와 일치한다.

나머지 다섯 건물은 창건된 이후 강녕전과 같이 모두 명종 8년(1553) 경복궁의 대화재로 불타고, 그 이듬해 명종 9년(1554) 재건되어, 기록대로라면 모두 2개의 건물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교태전과 함원전은 2개의 건물지가 중첩되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연생전, 경성전, 흙경각 건물지는 2가지 형식의 적심이 확인되

긴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확실한 1개의 건물지만 언급하고 있다. 나머지 다섯 건물지 또한 확인되는 유구가 문헌에 기록된 축조연대와 일정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침전지 조선전기 적심은 문헌상 조선전기(1395~1592)에 모두 동일하게 I-1형식을 사용하였지만, 축조방식과 규모에 있어 태조연간과 그 이후 세종·명종연간의 적심은 차이가 있다. 14C 말 태조연간(태조 4년, 1395년)에 축조된 적심은 잡석과 황색점토를 최대 8단 가량 켜쌓기 하였으나, 15C 중엽 세종(세종 20~31년, 1438~1449) 혹은 16C 중엽 명종(명종 9년, 1554) 연간에 축조된 적심은 태조연간적심에 덧대어 2~3단 가량만 쌓거나, 신축할 경우 3~4단 가량만 켜쌓기 하였다. 또한 태조연간 적심은 상단 직경 210~230cm인 반면 세종연간의 적심은 105~165cm로 그 규모 또한 작다. 적심의 규모는 건물의 규모와도 크게 상관관계가 있지만, 같은 건물을 이와 같이 적심의 규모를 달리하여, 그것도 후대에 보다 규모를 작게 축조한 것은 시기적으로 축조방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전기 적심은 I-1(원형잡석적심)이지만, 14C 말 태조 연간에 비해 15~16C 세종·명종 연간의 적심이 잡석을 쌓는 단수나 규모면에서 작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후기는 문헌기록상 시기차가 비교적 적다. 특히 고종 2년(1865)~고종5년(1868)은 4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경복궁 전체가 중건된 기간으로, 공사시기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적심의 형식이 달

표 7 경복궁 건물 유형별 적심 편년

구분	연대	유형						
		전	궁	당	합	각	방	재
조선전기	태조4년(1395)	I-1						
	세종20년(1438)					I-1		
	세종22년(1440)	I-1						
조선후기	고종2년(1865)	IV-1				IV-1		
		IV-2a						
	고종4년(1867)	II-2a			II-2a			II-1
		IV-2b			III-1a			
		IV-2d			IV-2d			
		V-1						
	고종5년(1868)	IV-1					II-2b	I-2
		IV-2a					II-3a	II-1
							IV-1	IV-1
								V-2a
	고종10년(1873)			IV-2c		I-1		
						II-2a		
						IV-2b		
						IV-2c		
						V-3		
고종13년(1876) 혹은 고종25년(1888)				I-3				
				IV-3b				

라진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 기간은 한 시기로 보고 편년 하도록 한다.

조선후기의 축조된 적심의 변천양상이 확인되는 형식은 I 형식(원형)과 IV형식(방형), V 형식(통적심)으로, 각각의 변천양상은 다음과 같다.

- I 형식(원형): 고종5년(1868) I-2(잡석+기와) → 고종10년(1873) I-1(잡석) → 고종13년 혹은 25년(1876 혹은 1888) I-3(강회+사질토)
- IV형식(방형): 고종4년(1867) IV-1(장대석) · IV-2a(장대석+잡석) · IV-2d(장대석+와전편 · 잡석 · 사질토 · 황색점토) → 고종10년(1873) IV-2c(장대석+회백색사질토) → 고종13년 혹은 25년(1876 혹은 1888) IV-3b(장방형석재+탄축부)
- V 형식(통적심): 고종4년(1867)~고종5년(1868) V-1(와전편+잡석) · V-2a(와전편+잡석) → 고종10년(1873) V-3(회백색 마사토)

조선후기 연도별 적심의 변화양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고종 2년(1865)~고종 5년(1868): I-2, II-1, II-2b, II-3a, III-1a, IV-1, IV-2a, IV-2d, V-1, V-2a
- 고종 10년(1873): I-1, IV-2c, V-3
- 고종 13년(1876) 혹은 고종 25년(1888): I-3, IV-3b

이처럼 고종연간 내에서도 각 중건 연대별로 다양한 형식의 적심을 축조하고 있으면서도, 시기별로 각기 다른 형식의 적심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된 재료도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경복궁을 재건한 고종 2년(1865)~고종 5년(1868)에 축조한 적심 10가지 형식 중 무려 7가지가 와전편을 섞어 넣은 형식인 반면, 고종 10년(1873)과 고종 13년(1876) 혹은 고종 25년(1888)에는 5가지 형식 중 3가지가 강회를 섞어 넣은 사질토를 사용한 형식으로 대조를 이룬다.

이는 조선전기 적심이 잡석과 장대석 등 석재만을 이용하여 축조하는 것과도 또 다른 방식으로, 각 시기마다 축조방식 뿐 아니라 사용되는 재료 또한 달라짐을 말해 준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를 궁궐 건물의 유형별로 재편년하여, 각 건물 유형별 적심이 축조된 변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검토한 고고학적, 문헌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편년한 경복궁 적심(표 6)을 III장에서 살펴본 건물의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각 건물유형별 적심의 편년을 도출하면 위와 같다(표 7).

건물 유형별 적심의 편년을 분석해 본 결과, 변천양상이 확인되는 건물 유형은 '전', '당', '각', '방'이다. 이 밖에 '궁'과 '합', '재'의 경우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자료로는 한 시기 밖에 확인되지 않음으로 시대별 변천양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각 건물 유형별 축조된 적심의 변천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물 유형 '전(殿)'의 적심은 조선전기 14C말~15C 중엽 I-1 → 조선후기 고종 2년(1865) IV-1, IV-2a → 고종 4년(1867) II-2a, IV-2b, IV-2d, V-1 → 고종 5년(1868) IV-1, IV-2a 로 변천된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변천양상은 고종 2년(1865)~고종 5년(1868)의 4년이란 짧은 기간이고, 고종 2년에 사용된 IV-1, IV-2a 형식이 고종 5년에 재차 중복되어 사용되는 등 변천양상으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 기간은 앞서 문헌기록에 대입하여 살펴본 적심 편년에서처럼 한 시기로 보고 편년하도록 한다.

따라서 건물 유형 '전'의 적심은 조선전기 14C말~15C 중엽 I-1(원형 잡석 적심)형식의 적심이 축조되다 조선후기 고종연간 경복궁 재건 당시(19C 중엽)에는 II-2a(말각방향 잡석+와전편), IV-1(방형 장대석), IV-2a(방형 장대석+잡석), IV-2b(방형 장대석+잡석+와전편), IV-2d(방형 장대석+와전편), V-1(통적심 와전편+잡석) 형식의 적심이 축조된다. 조선전기 I-1(원형 잡석)형식 적심은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 교태전, 함원전의 적심을 검토해 봤을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C 말 태조 연간에 비해 15~16C 세종·명종 연간의 적심이 잡석을 쌓는 단수나 규모면에서 작아진다. 조선후기 19C 중엽에는 말각방향(II), 방형(IV), 통적심(V)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방형(IV)적심이 가장 많이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건물 유형 '당(堂)'의 적심은 조선전기에 분석대상

적심이 없어 조선후기의 변천양상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종 4년(1867) II-2a, III-1a, IV-2d → 고종 13년(1876) 혹은 고종 25년(1888) I-3, IV-3b로 변화한다.

'당'의 적심 변천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고종 4년(1867) 축조된 II-2a(말각방향 잡석+와전편), III-1a(세장방향 잡석+와전편), IV-2d(방형 장대석+(잡석+와전편)) 적심은 모두 잡석과 와전편을 섞어 만든 것임에 비해, 그 뒤 고종 13년(1876) 혹은 고종 25년(1888)에 축조된 I-3(원형 강회+사질토), IV-3b(방형 장방향 석재+탄축) 적심은 각각 강회와 탄축부 상면에 장방형석재를 얹어 축조된 점이다. 이는 고종연간 대대적으로 경복궁을 중건할 당시에는 '당' 유형의 건물에 잡석과 와전편을 섞어 넣은 형식의 적심이 많이 사용되다 이후에는 다른 건물 유형에서 확인되지 않는 강회사질토 및 탄축 기초라는 독자적인 형식의 적심이 사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건물유형 '각(閣)'의 적심은 15C 조선전기 세종 20년(1438) I-1(원형 잡석) → 19C 중엽 조선후기 고종 2년(1865) IV-1(방형 장대석)의 뚜렷한 변천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각'의 적심은 조선전기에 I-1(원형 잡석)형식의 적심이 축조되다, 조선후기에는 IV-1(방형 장대석)형식의 적심이 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각'의 적심 변천양상은 앞장에서 살펴본 건물 유형별 적심과 마찬가지로 건물유형 '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전'과 '각'은 조선 후기에 방형적심이 각각 85.7%, 50%로 가장 많이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변천양상 또한 조선전기 I-1형식, 조선후기 IV형식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房)'의 적심은 조선전기에 분석대상 적심이 없어 조선후기의 변천양상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종 4년(1867) II-1(말각방향 잡석) → 고종 5년(1868) II-2b(말각방향 와전편+(잡석+와전편)), II-3a(말각방향 회백색점질토+(잡석+와전편)), IV-1(방형 장대석)의 변천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로 적심의 변천양상으로 단정 짓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따른다.

이상 건물 유형별 적심 변천양상 검토를 통해, 궁궐 건물의 유형별 적심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고, 이는 곧 궁궐 건물 유형별로 적심을 달리 축조함과 동시에 시기별로도 축조방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모든 건물 유형별 적심의 특징과 변천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따랐지만, 향후 발굴조사 자료들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 및 연구 자료들이 축적되면 궁궐 건물 기초인 '적심' 전반에 대한 편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궁궐은 당대 건축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건축물이다. 특히 경북궁은 조선의 정궁(正宮)이자 개국과 동시에 건설된 최초의 궁궐로써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경북궁의 건물지 유구는 단순한 '터(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선시대 대표 궁궐 건물의 '기초 시설'로써, 이에 대한 연구는 건물의 한 부분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경북궁에서 가장 잔존상태가 양호한 건물지 '적심(積心)'에 대하여 분석하고, 각 건물 유형과의 관계와 그에 따른 변천 양상에 대해 살펴해보았다.

경복궁 적심은 평면 형태에 따라 원형(I), 말각방형(II), 세장방형(III), 방형(IV), 통적심(V)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시 축조방식과 사용된 재료에 따라 21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특히 조선전기 14~16세기에는 원형 잡석 적심(I-1), II-1(말각방형 장대석), II-2a(말각방형 잡석+와전) 세 가지 형식의 적심만 축조되다가, 조선후기 19세기에 들어 21가지 분류한 모든 적심이 다양하게 축조된다. 이를 통해 조선전기에 비해 후기에 적심의 다양한 축조방식과 재료가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기술 수준과 기술력의 변화가 있었음을 대변해 준다.

또한 적심은 건물의 기초로써 상부 건물의 구조 또는 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궁궐 건물의 유형별로 사용된 적심을 검토한 결과, 건물의 유형(전(殿), 당(堂), 함(閣),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

(亭)에 따라 그 기초, 즉 적심도 달리 축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자료의 한계상 '전', '당', '각', '방'의 일부 건물 유형만 확인되었는데, '전'과 '각'의 경우 장대석으로 축조한 방형 적심(IV)이, '당'과 '방'의 경우 기와와 잡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말각방형 적심(II)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타 건물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대부분 조선 전기 선대(先代) 건물지의 적심임으로, 조선전기에 원형 잡석 적심(I-1)이 많이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인의 신분이 높고 격이 높은 건물일수록 건축물의 격이 높듯이, 그 기초부, 즉 적심 또한 가장 견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 유형별 적심은 시기별로 축조되는 형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과 '각'의 경우 모두 14~15세기 조선전기에는 I-1형식(원형 잡석)의 적심이 축조되었고, 19세기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형식의 적심이 축조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방형 적심(IV)이 많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의 경우 조선후기의 변천 양상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종 4년(1867) 축조된 적심은 잡석과 와전편을 섞어 넣은 형식의 적심이 많이 축조되고, 이후 고종 13년(1876) 혹은 고종 25년(1888)에는 다른 건물 유형에서 확인되지 않는 강회사질토 및 탄축 기초라는 독자적인 형식이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적심은 단순히 건물의 배치나 평면 형태 및 규모 등을 추정하는데만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적심은 건물의 기초시설로써 상부 건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북궁을 비롯한 여러 유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이다. 이를 분석하여 각 건물 기초의 특징을 파악한다면, 현재 남아있지 않은 건물이라도 그 건물 기초를 통하여 해당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는지, 어떤 시기의 건물이었는지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적심과 건물의 형태와 규모·높이 혹은 지붕의 양식과 크기, 기둥과 공포의 종류와 형식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적심을 통해 다양한 성격, 다양한 시대의 건물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이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참 / 고 / 문 / 헌

사 료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국역본 DB
- 『承政院日記』,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 DB
- 『宮闕志』,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北闕圖形』, 서울대학교 규장각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경복궁 침전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경복궁 소주방지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경복궁 흥복전지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경복궁 함화당 · 집경당 행각지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중앙박물관, 1996, 『경복궁 훈국군영직소지』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사무국, 1995, 『경복궁왕궁역사박물관건립지 내 발견유구실측보고서』
-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3, 『경복궁 녹산지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 문화재청, 2005, 『경복궁 광화문-원위치 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
- 문화재청, 2003, 『경복궁 건청궁지』
- 문화재청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경복궁 태원전권역』
- 문화재청, 2000, 『경복궁 동궁지역중건공사보고서』
- 문화재청, 2001, 『경복궁 흥례문권역중건공사보고서』
- 문화재청, 2005, 『경복궁 태원전중건보고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경복궁 태원전지』

단행본

- 강경숙, 2000,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 경복궁관리소, 2005, 『조선의 법궁 경복궁』, 경복궁관리소
- 김동욱, 1997,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 김동욱, 1999,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동현, 1995, 『한국 목조 건축의 기법』, 발언
- 김동현, 2002,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 김영원, 2003,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윤영, 2005, 『사람을 닮은 집, 세상을 담은집(사회를 비추는 거울, 집의 역사로 말한다)』, 서해문집
- 이강근, 1998, 『경복궁』, 대원사
- 이덕수, 2004, 『新 궁궐기행』, 대원사

연구논문

- 김동욱, 2002, 12, 「조선 초기 경복궁 수리에서 세종의 역할」, 『건축역사연구 제 11권 4호』
- 송필연, 1995, 「경복궁 내조(침전지) 발굴조사 개보」, 『한국고고학보 33』

- 조재모 · 전봉희, 2000, 「고종조 경북궁 중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138호』
- 최인화, 2008. 2, 「景福宮 建物址의 考古學的 研究-특히 積心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화, 2008. 6, 「조선의 정궁, 경북궁의 건물지에 대한 소고」, 부산고고학연구회, 『고고광장 2』

Mun Hwa Jae Vol 42, No. 03, September 2009, pp. 154~175
 Copyright ©200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Study on Foundation Remains(Jeoksim) According to Types of Buildings of Gyeongbok Palace

Choi, In Hw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ceived : 30 July 2009 | Revised : 26 August 2009 | Accepted : 10 September 2009

Abstract

At the present state, studies on Gyeongbok palace are being done with history of architecture, records, and art. However, these studies have limits that they can only depend on existing buildings and record, which make it hard to research whole aspect of palaces. The foundation remains(Jeoksim) of Gyeongbok palace in the ground gives important clues that can fill the gaps of these studies. Thus I analysed jeoksim of Gyeongbok palace, assorted them by type, scale, material, and construction method. I examined jeoksim used by various types of building, and looked at changes by periods. Jeoksims are classified in 21 types. The foundation(jeoksim) varies according to types of buildings, building types and material of jeoksim also varies along the periods, and the fact proves certain period of time has its own jeoksim style in fashion. Jeoksims of Gyeongbok palace are divided into round-shape(Ⅰ), rounded square-shape(Ⅱ), rectangular-shape(Ⅲ), square-shape(Ⅳ), and whole foundation of building(Ⅴ) by the plane shape. They can be divided again into 21 types by construction techniques and materials used. During early Joseon(Ⅰ), only three types of jeoksim; round-shape riprap jeoksim(1-1), Ⅱ-1(rounded square-shape), Ⅱ-2a(rounded square-shape riprap+roofingtile brick), had been built, but as 19th century begun, all 21 types of jeoksim had built. In 19th century during Emperor Gojong, different types of jeoksim by periods were built, and especially different materials were used. During Gojong year 2(1865)~year 5(1868), in which Gyeongbok palace were rebuilt, 7 out of 10 types of jeoksim used piece of roofing tile and brick mixture, in contrast, during Gojong year 10(1873)~13(1876), or 25(1888), 3 out of 5 types of jeoksim used sandy soil with mixture of plaster. Meanwhile palace buildings have different names by the class of owner and use such as Jeon, Dang, Hap, Gak, Jae, Heon, Nu, and Jeong, which were classified by types and buildings were built according to each level. With an analysis of jeoksim by its building types, I ascertained that jeoksim were built differently in accordance to building types(Jeon, Dang, Hap, Gak, Jae, Heon, Nu, and Jeong). By the limitation of present document, only some types of buildings such as Jeon, Dang, Gak, Bang were confirmed, as for Jeon and Gak, square-shape(Ⅳ) built with rectangular parallelepiped stone, and for Dang and Bang, rounded square-shape(Ⅳ) built with roofingtinging tile and riprap were commonly used. From the fact that other jeoksim with uncertain building names, were mostly built in early Joseon, we learn that round-shape riprap jeoksim(1-1) were commonly built. Therefore, the class of building was higher if the owner was in higher class, jeoksim is also considered to be built with the strongest and best material. And for Dang and Bang, rounded square-shape jeoksim were used, Dang has lots of Ⅱ-2a (riprap + piece of roofing tile and brick rounded square-shape) type which mainly used riprap and piece of roofing tile and brick, but Bang has lots of Ⅱ-2b (piece of roofing tile and brick+(riprap+piece of roofing tile and brick rounded square-shape), which paved piece of roofing tile and brick by 15~20cm above. These jeoksim by building types were confirmed to have changed its construction type by period. As for Jeon and Gak, they were built with round-shape riprap jeoksim(1-1) in early Joseon(14~15c), but in late Joseon(19c), various types of Jeoksim were built, especially square-shape(Ⅳ) were commonly built. For Dang, only changes in later Joseon were confirmed, jeoksim built in Gojong year 4(1867) mostly used mixture of riprap and piece of roofing tile and brick. In Gojong year 13(1876) or year 25(1888), unique type of plaster with sand and coal and soil layered jeoksim were built that are not found in any other building types. Through this study, I learned that various construction types of jeoksim and material were developed in later Joseon compare to early Joseon. This states that construction technique of building foundation of palace has upgraded. Above all, I learned jeoksim types are all different for various kinds of buildings. This tells us that when they constructed foundation of building, they used pre-calculated construction technique.

Keywords | Joseon, Gyeongbok palace, foundation of building, jeoksim[foundation remains], palace building types